

##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한국

佐々木常和

神戸學院大學 教授

E-mail : [sasaki@kobegakuin.ac.jp](mailto:sasaki@kobegakuin.ac.jp)

김 광 수

강원대학교 경영관광회계학부 교수

E-mail : [kjkim@kangwon.ac.kr](mailto:kjkim@kangwon.ac.kr)

이 유

강원대학교 경영관광회계학부 교수

E-mail : [yuyi@kangwon.ac.kr](mailto:yuyi@kangwon.ac.kr)

.....

최근 미국발 서브프라임 문제로 세계 각국의 경제가 공황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화되어가고 있다. 특히, 한국은 몇 년 전부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빗대어 이야기 되어졌다. 본고에서는 일본의 경우 어떤 원인과 당시의 상황을 알아보고 한국의 경우 어떤 차이와 유사점이 있는지를 살펴본 후, 일본의 사례를 통해 한국이 취할 교훈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

<색인어> 버블, 서브프라임, 잃어버린 10년

### I. 서 론

요즘, 자고 나면 온통 환율, 주가, 구제금융 등 경제 관련 이야기 일색으로 하루가 지나간다. 처음엔 미국의 서브프라임 문제로 한정되는가 싶더니 그야말로 전세계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경제 소용돌이에 빠져 혼미한 상태에 빠져 있다.

더구나, 한국은 지난 1997년에 호되게 당한 경험이 있어 더욱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금융 위기가 세계 경제를 동반하여 침체 상태로 빠져들며 과거 90년대

일본이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이 전세계를 덮칠 수 있다는 걱정이 생기고 있 때문이다.

그 까닭은 금융 위기를 촉발한 미국이 심각한 소비 위축으로 상품 거래가 원활하지 못하면 가격이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에 빠지게 되어 소위 신흥시장의 국가들의 수출이 막혀 90년대 말에 아시아에 덮쳤던 금융위기 때와는 달리 오랜 침체를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생기고 있다.

한편, 지난 몇 년 전부터 한국은 일본에서 사용했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말을 자주 인용하곤 하였다.

물론, 그 말의 의미와 원인은 분명 다르지만, 경제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하며 국내 경제의 침체 상태가 유사하여 사용되었던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과거 일본이 발전했던 원인과 겪었던 "잃어버린 10년"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후 극복한 상황 등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해 어떤 차이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을 고찰하려고 한다.

## II. 일본의 발전 요인

1950년~1970년 사이 평균 성장률이 10%를 구가하며, 1970년대 2번의 오일 쇼크가 있었지만 1970년~1990년 평균 성장률 4.5%와 엔고 현상 덕분에 달러 베이스로 국민 일인당 소득이 미국에 대등하기까지 되었다. 이와 같은 성장 요인을 보면 ①국제적 분쟁에 말려 들어가지 않았다, ②군비에 자금을 사용하지 않고 경제에 힘을 집중할 수 있었다. ③IMF, GAT 아래에서 무역 확대에 전념할 수 있었다. ④높은 교육 수준과 풍부한 노동력을 갖고 있었다. ⑤국민의 근면성과 사회의 균질성이 집단목표 지향을 강하게 하였다. ⑥관민의 협조 체제, 산업 육성 정책이 있었다. ⑦비군사화, 독점 금지, 재벌 해체, 농지 해방 등의 민주화가 사회에 활력을 주었다. ⑧무자원국이기 때문에 원재료 수입, 가공, 수출이라고 하는 가공 무역 기지로서 비약 하게 하였다.

## III.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의 발생 배경

### (1) 첫째 원인

1973년 오일쇼크로 인해 전세계가 불황에 빠졌지만 일본은 재빨리 코스트 다운을 서둘러, 정부와 일본은행이 강력한 금리 인하와 창구 규제등의 완화 정책을 취하며 위기를 넘겼다. 그 결과, 대대적인 수출 증대로 인해 무역마찰을 야기시켰다.

결국, 1985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은 뉴욕의 프라자 호텔에 G5를 소집해, 소위 프라자 합의를 통해, 각국에 내수 확대를 요청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였다.

- ①시장의 개방과 시장에의 접근을 확립하기 위해 지원을 하는 일
- ②규제를 완화하여 비즈니스의 자유성을 높이는 일
- ③수출로부터 내수 주도의 경제로 전환하는 일
- ④재정 적자의 개선을 서두르는 일 등이다.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마에카와 리포트가 제출되었다.

- ①국제 사회의 일원으로 인정되기 위해 일본은 향후 국제기준을 지킨다.
- ②국민의 생활 향상에 초점을 맞춘다.
- ③고용 확대의 정책을 취해 30만 명의 고용의 창출을 한다.
- ④내수 확대의 경제로 전환한다.
- ⑤위의 사항을 수행하기위해 민간과 지방자치의 힘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향후 10년간에 걸쳐 일본 내에 430조엔의 공공투자를 하겠다고 합의하였다. 그 결과, 도쿄만 횡단도로 , 시코쿠 가교 , 세이칸 터널 등 여러 고속도로 , 댐 , 해안 방어 공사에 합계 650조 엔의 공공투자를 실시했다. (시코쿠 4현의 인구가 500만 명 인데 4조엔 투입 , 세이칸 터널에 121, 5조 엔을 투자해 적자 지방 로선이 되었다.). 이처럼, 단기간에 방대한 돈이 토목, 건설, 부동산 등에 투입되어 국민에게 큰 부채가 남겨졌다. 이것이 버블 원인의 1개이다.

## (2) 둘째 원인

1985년의 엔고에 의해 수출이 정체해 이른바 엔고 불황이 나타나 , 정리 해고가 횡행했다. 이윽고 엔고는 수입하는 비용이 적어져 많이 수입하게 되는 엔고

효과가 나왔다.

### (3) 세째 원인

금융기관의 대출 경쟁이 일어났다. 대기업은 고도 성장의 궤도에 올라가면서 자금이 많아져 차입의 필요가 없어졌으며, 일반 기업들도 보증사채, 전환사채 등의 에퀴티(equity) 파이낸스에 의해 저비용의 자금 조달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은행 이탈이 일어나게 되어 나락에 빠진 은행은 대출 경쟁에 매달려, 중소기업에도 적극 융자를 했다.

### (4) 네째 원인

토지 신화(토지는 가격이 하락하지 않는다)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담보로 토지·부동산 투자에 매달렸다. 또한, 은행 계열의 논뱅크가 설립되어 토지·주식시장에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소위 투기 바람이 봄에 따라 기업은 토지·주식 등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 자금 코스트가 적어지자 기업들이 과대한 설비투자에 매달려 버블에 박차를 가했다.

즉, 엔고와 은행의 무절제한 대출에 의해, 해외 부동산, 기업 매수, 그림 등의 사재기가 일어났다. 국내에서도 아낌없이 돈을 쓴 설비투자를 했다.

## IV. “잃어버린 10년”에 나타난 현상

### (1) 정신적 해이

1980년까지 풍부한 축적, 낮은 금리, 기록적인 기업 이익, 거액의 외화 준비, 강력한 하이테크 기업과 은행 시스템이 갖추어졌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본받아야 할 외국의 모델도 없어졌다고 오만하게 생각한 리더들은 어떤 기준도 분수도 없이 경제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들은 대불황이나 공황의 경험도 없었고 전쟁 후 상승 밖에 몰랐기 때문에 돈이 신이 되어 검소하고 정직한 성질이 빼돌어지고 사리사욕에 매달려 세상과 나라를 위한다는 생각은 점점 희박해지고 있었다.

### (2) 일반적 현상

결국, 모든 상황이 거꾸로 돌아가며, 토지·주가의 하락, 해외·국내 설비투자가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이자·원본을 돌려줄 수 없는 불량 채권, 용자가 억누르며, 도산이 잇따르는 94년에 엔고현상이 나타나 수출 감소로 이어졌다. 95년 고용 유연화, 기업 등급설정(정리해고 하지 않으면 등급설정 내린다), 정식 사원 감소, 비 정식사원 증가, 닛트·프리터의 사회 문제화, 출생률 저하, 범죄가 증가하며, 자살은 매년 3만명 이상을 기록했다.

### (3) 금융 교란

손실 보충, 폭력단체의 용자 등이 표면화되어 버블이 붕괴되었다. 즉, 1989년 12월 29일 일본경제 평균주가는 39,800엔이었던 것이, 2003년 5월에는 8,300엔까지 내렸다.

토지·주식의 가치는 피크 때에 비해 1,000조엔 이상 감가했다. 91년 이후 98년까지 년 평균 실질 성장률은 불과 1.0%. 자산 가액의 하락과 일본 경제 시스템의 모순이 표면화되어 10년간 지속되었다.

버블 붕괴로 모든 것이 거꾸로 돌아, 800조 엔의 재정 적자, 정부는 특례법 등에 의해

국채, 지방채를 발행하였고, 대부분의 시, 읍, 면 자치체의 예산은 60%이상이 빚, 공채, 중앙정부로부터의 교부금으로 조달하는 지경으로 몰아졌다. 이 빚은 결국 국민이 지불하는 것이다. 통상, 4인 가족으로 2,400만엔 이상의 빚을 짊어지게 되었다.

또한, 국가 예산의 적자(55%가 세수입, 45%가 국채로 커버), 은행의 불량채권 처리를 국민의 제로금리로 조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비춰지게 되었다.

국내, 국외의 방대한 설비투자도 불황으로 생산 중지가 되어, 수익을 올리지 못하며 이자도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 기업은 전환사채, 워런트채의 상각 대책 때문에 거꾸로 부담이 증가했다. 벌어들였던 이익을 토해내, 상호 소지하고 있던 주식은 혈값에 처분하게 되었다. (탈취 방지의 상호부조 시스템으로서 고주가, 거래관계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어 왔지만, 유지비용이 비싸져 자산의 유동성을 추구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더 이상 어려워졌다. 또한, 주식보합이 참가 장벽이라고 미국으로부터의 압력도 있었다).

### (4) 풍요 속의 빈곤

일본의 상품은 종류와 양이 풍부하다. 예를 들면, 카메라의 기능과 디자인이

비슷한 콤팩트 카메라가 매장에 흘러 넘치고 있다. 게다가 소비자는 싼 것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이 어떤 것을 사도 대부분 같다. 그러나 메이커는 이득이 점점 박해져 갔다. 아사히 광학공업은 매출액이 800억엔 인데 경상이익은 단, 6억엔 밖에 없다. 미놀타는 매출액 2200억엔에 경상이익 50억엔의 적자로, 일본의 제조업은 이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는 경쟁으로, 모델 체인지를 하고, 점유율을 다투었다. 점유율 과잉 증시의 요인은, ①양적 확대에 최대의 인센티브를 느끼는 기업 풍토 ②좋으며 싼 상품이 대량으로 소비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하는 수도 철학 ③이익 배당을 신경 쓰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는 소유 구조 ④이익이 낮아도 다가오는 장기 우 상향의 경기 ⑤전문 메이커화보다 종합 메이커화, One Set주의 ⑥타사 제품과 다른 것보다 닮은 것을 만드는 편이 안심이라고 하는 심정. 이런 풍토 속에서 같은 물건을 만들어 가격 경쟁을 하는 결과, 근로자는 저임금, 장시간 노동으로 풍부함을 느껴지지 않는다. 주주는 저배당에 만족하고, 하청업자에게는 엄격한 코스트 경쟁을 전가시켜 왔다. 그리고 홍수와 같은 수출이 낮은 무역마찰, 대량생산과 대량 소비를 허락하지 않게 된 지구 환경 문제 등에 의해, 점유율 지상 주의는 반성을 강요 받게 된다.

94년의 엔고에 의해 수출 기업은 한층 더 곤경에 빠졌다

이윽고, 95년 일본 경영자 단체연맹은 고용 유동화를 밝혔다. 또 기업은 「기업의 등급 설정」이 내리는 것을 무서워해 정리해고에 매달리게 되어 보통 정식 사원의 비율이 7할, 비정식 사원은 3할이 된다.

그 결과, 취직을 못하여 니트, 두문불출해 프리터가 되는 젊은이가 증가하며, 결혼도 못하며, 결혼을 해도 출산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나 사회 문제가 되었다.

또한, 은행이 불량채권이 많이 생기자 대출거부를 해, 도산이 잇따르고, 자살자가 매년 3만명 이상이 생기는 현상이 10년간 계속되었다.

## (5) 주주자본 이익율의 증시화

일본 기업의 주주자본 이익율은 낮다. 과잉투자로 자산은 증가했지만 수익을 낳지 못했다. 미국 기업의 이익율은 높고, 수익율이 높은 사업을 골라 투자를 한다, 일본 기업은 적자를 내, 미래의 전망도 없는데 철수하지 않는 곳이 많다. 일본 기업은 자본 코스트가 낮고, 종업원은 서비스 산업까지 하는데 왜 이익율이 낮은 것인지? 일본 기업은 주주자본 이익율 등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쉐어 중시, 박리다매 지향, 주식도 균형으로, 이익율, 배당율에 제약받는 것이 없었다. 미국에서 회사는 주주의 물건으로, 자본에 대한 이익을 극대화 해야 하지만, 일본에서는 회사의 격이 이익율이 아니라 매상 규모로 정해진다. (저금리 정책, 비싼 주가, 낮은 배당으로 자본 코스트가 낮고, 채산이 낮은 사업이 존속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종신고용제를 유지해 왔다). 그러나, 향후 주주자본 이익율을 중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가는 오르지 않고, 자금조달도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 (6) 제품개발의 반성

종래의 하이테크는 바로크화(가전제품은 쓸데없는 장식·기능이 늘 그저 그렇다)라는 점 때문에 컴플렉스화해 사용하지 않는 미스매치화가 일어났다. 하이테크 기기는 본연의 모습과 다른 방향으로 기술이 따로 지나가며, 과잉 기술로 치닫고 있다. 또한, 사용자와의 사이에 거리가 생겼다. 가전제품은 6개월에 개발해, 3개월에 생산해, 3개월에 판매하는 소위 상품 사이클이 짧다. 자동차도 차종, 형식을 큰 폭으로 늘려, 모델 체인지를 빈번하게 함으로써, 다품종소량생산이 너무 지나치고, 개발비와 상각비가 늘어남에 따라 이익이 없는 골치덩어리가 되고 있는 일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 (7) 일본의 위기

"잃어버린 10년"을 통해 나타난 일본의 위기로서 ①선진국병, 사회자본의 축적도 불충분해 아직도 성장이 필요하지만 10년간의 경제 성장률은 1%대였다. ②고령화, 두뇌화, 소프트화, 서비스화에 의해 노동력의 미스 매치가 증가해 실업 증가, 유동화, 사회 보장·의료비의 증가가 현저하다. ③국가 파탄의 위기, 산업 공동화, 고비용 구조, 생산성과 성장의 둔화, 신산업 창조의 지연, 국제 경쟁력의 저하, 정치가와 관료에의 불신감, 거대화 하는 적자 재정, 경제구조 개혁의 지연, 정보 혁명에의 대응의 지연, 정치 리더쉽의 결여, 행정과 경영자의 개혁 리더쉽 부족 등을 들 수 있다.

# V. 한국의 "잃어버린 10년"과 일본으로부터의 교훈

## (1) 한국에서의 "잃어버린 10년"

한국에서의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용어는 일본과 상이한 배경을 갖고 있다.

즉, 한국에서는 김대중 과 노무현 두 대통령이 재임하던 10년을 일컫는 말이 되어버렸다. 이는 두 대통령이 자유경제 성향이 아닌 사회주의적 성향의 사고와 경제정책을 선호하며, 대기업들에 대한 규제를 통해 결국 기업들의 성장 동력을 살리지 못하며, 경제가 침체되어 들어갔기에 이를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빗대어 표현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보 쪽의 사람들은 한나라당과 이 명박 대통령 진영의 정치적 술수로 과거 60, 70년대의 고도성장을 잊지 못해 나온 것이라고 혹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기업에 대한 상대적 규제 증가와 양극화의 극심화, 비정규직 양산, 부동산 가격 폭등 등으로 기업들의 투자 회피 및 해외 이전 증가로 자칫 국내 산업의 공동화 현상을 빚어 일본과 원인은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비슷한 양상이 초래 되는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더구나,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로 급기야 2008년10월에 들어서서 전세계적으로 주가폭락, 부동산가격 폭락, 환율 급등락, 금리 인하, 석유 등 원자재가 폭락 등이 잇달아 일어나면서 경기가 급랭해지며 급기야 아이슬란드, 크로아티아, 헝가리 등에 I.M.F. 자금수혈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한국은 악화된 외환을 미국과 스와프협정을 맺음으로써 위기에서 모면된 분위기로 최악의 상황은 벗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문제는 과거 아시아 금융위기의 경우 미국 등 주요 선진국 경제권이 버텨주면서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로 신흥시장의 경제가 빠르게 회복됐지만 이번에는 금융위기로 미국은 물론 전세계경제가 동시에 어려움에 직면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달라진 것이다.

결국, 금융위기가 세계 경제를 동반 침체로 이끌면서 90년대 일본과 같은 "잃어버린 10년"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를 덮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도 소비지출이 줄어들면서 경기침체가 명약관화하다. 금년도 경제성장률도 감소하며 디플레이션에 빠져 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된다. 디플레이션은 1930년대 대공황 때 나타났었고, 90년대 일본도 디플레이션으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었던 것이라 우려된다.

## (2)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의 교훈

일본의 경우와 다소 다르게 전개된 우리 경제상황은 경기침체에 직면해 정책적인 대응이 미숙하고, 실패되어가는 과정이 유사하며, 소비위축과 신용불량자와 퇴출자 급증에 따른, 가계 경제의 악화, 부동산 거래 상실 및 이에 따른 미분양 증가로 인한 건설사들의 경영 악화, 증권시장의 폭락 등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 연계해 볼 때 자칫 장기 불황과 디플레이션에 진입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국이 일본처럼 정책적 대응의 미숙함과 실패의 과정을 견고 있다는 것은 98년 외환위기 연장선상에서 99년과 2002년 경기회복이 일시적이고 불안정적이었음에도 금리를 인상하여 경기를 후퇴기로 재진입 시키는 우를 저질르며, 재후퇴기에 다시 완화하여 경기부양에 나서 정책의 비일관성을 보여 시장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점이 일본과 유사하다.

금융부문에서도 버블붕괴로 은행의 부실이 크게 증가했고, 일본경제의 장기침체주범으로 지목받는바, 한국도 무분별한 대출전쟁과 환 헛지를 통해



신용불량 등으로 은행부실이 늘어나며, 자금부족을 일으켜 한국은행으로부터 자금지원과 해외자금 도입시 정부보증을 받게끔 어려워져 다시 은행의 안전성을 걱정하게 되었다.

최근의 급작스런 경제상황에도 정부와 한은 등 관계부처간의 의견조정이 되지 않으며 한 발 늦은 금리인하 등 각종 대책이 발표되어 실효성이 떨어져 국내외적으로 신뢰도가 떨어진다. 더구나, 고용위축과 투자위축, 소비위축, 낮은 원화 가치, 가계부실, 은행부실, 고령화 사회 진입, 부동산거래 중단 및 폭락, 세계적 시장 수요 위축 등으로 디플레이션에 휩쓸리며, 자칫 장기침체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디플레이션은 그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예견될 때 빨리 대처하지 않으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어렵다는 것을 일본의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다행히 미국과의 통화스와프협정을 맺어 외환상의 큰 문제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구조적인 부실의 조속한 정리와 반시장적인 세제 등 각종 규제책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 VI 결 론

일본은 2007년 전후세대 퇴직, 비 정직사원으로부터 정직 사원으로의 변화, 지적 창조, 합병 전략이 성행했다 이는 몇 년 전부터 경기가 회복 기조에 오르는 것과 때를 맞췄지만, 원유가 상승, 미국 서브 프라임 론의 영향도 있어 다시 감속되고 있다..

더구나, 제조업의 매출액에 차지하는 해외 비율이 5할 가깝게 되어 신흥국에서의 판매가 컸으나 최근 경기침체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에너지, 자원 개발 사업에 관여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신흥국에서의 급격한 임금 상승 등을 접한 일본 기업은 해외 생산 체제를 재편하는 움직임도 나오고 있다.

산유국에의 소득 유출과 원가상승분의 가격전가가 진행되지 않아 채산을 악화시키고 있다. 전후세대의 대량 퇴직에 의해, 젊은이의 취직 상황은 다소 개선되었으나 경기회복전망이 나와 다시 실업률이 오르고 있다.

일본의 문제점 중 우리나라도 같은 것을 들면, ①행정과 규제에 의존한 경제 시스템, ②찌그러진 대외 경제 관계, 즉, 시장의 폐쇄성, 외국인, 외국 기업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하고 있는 사회구조 ③보수적 사회, 종신고용제, 동일

연령으로 차이가 없는 임금, 획일적, 집단적 의사결정 및 그런 인간은 글로벌 사회에서는 통용되지 않는다. ④기업 조직의 폐쇄성, 하청 제도, 계열의 장기적 고정적 거래, 종신고용을 전제로 한 교육 시스템, 임금체계를 유동성 높은 개방적인 기업 시스템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 ⑤행정 시스템의 폐쇄성, 부처의 종적관계 행정, 낙하산 인사, 부처이기주의를 고쳐 민간으로부터 행정의 최적인 인재 등용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일본이나 한국을 유지해 온 구조, 조직, 사람, 의사결정 시스템 등을 바꾸지 않으면 개혁은 진행되지 않는다.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즉, 자신과 동떨어진 다른 세계의 문제로서 바라보는 것만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모두가 종래의 범주 속에서 개혁을 실시하는 것은 어렵다.

참 고 문 헌

네이버 블로그 (2008.9.18) , " 잃어버린 10년은 어디에? "

오 정석 (2003), 잃어버린 10년, 일본의 교훈 , 국민선물.

佐々木常和(2008.), バブル、失われた10年、その後

William Patalon III(2008.7.17) , The Lost Decade: How the U.S. Financial Crisis Resembles Japan"fs Ten Years of Misery - And How to Play it .

Justin McCurry (September 30 2008 ) , Japan's lost decade .

## A study on the "lost 10 years" of Japan and Korea

Sasaki Michitaka

Kim Kwang So

Yi Yu

### Abstract

As we know, since Japan's robust economy – which lasted from the mid-1980s to early 1990s (the so-called Bubble Economy) – collapsed in 1991, the country has been enduring a prolonged stagnation period, and experiencing a long wave of economic, financial and political reform. People negatively refer to this period as "the Lost 10 years," suggesting the decade has been spent in vain, with Japan having done nothing constructive for its future. On the contrary, many Korean used to say "the Lost 10 years." We review the background and situation of Japan's and Korea's. Then, Korea have to remember what 's the reason in Japan.